

# 진실과 거짓

이주노동자의 한국살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피안씨

그들과 우리의 꿈은 다르지 않다

삐삐에 남겨진 그녀의 문자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 전교 1등 하다

글●삼순이PD  
사진●김진석, 양철모

이주노동자  
10만명

노동자

삼순이  
PD

'진실과 거짓' 프로젝트는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띠안씨

인도네시아인 띠안씨는 한국에 온 지 6년 된 이주노동자다.

1) 15일짜리 관광비자로 들어와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이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그런대로 지낼 만 하다. 한달 월급 80만원... 뼈뚫은 생활이지만 아직은 견딜만하다.

한창 공장에서 일을 하던 띠안씨에게 고향친구가 급히 찾아왔다.

친구는 고개를 떨구며 띠안씨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띠안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 목표한 돈을 다 모으지 못해 귀향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2) 전화를 하면 늘 보고 싶다며 돌아오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머칠을 끄꽂 앓아가며 고민한 띠안씨는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급한 마음에 가족들의 선물을 간단히 사고 자진출국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찾았다.

낮선 사무소, 신고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무소 직원이 띠안씨에게 3) 벌금 56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불법체류를 했으니 그 기간만큼 벌금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하지만 띠안씨의 주머니에는 달랑 비행기표 한 장 뿐이다.

조금 모아둔 돈마저 어머니 치료를 위해 송금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귀국을 결심했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다.

회사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도 없다. 막막했다.

띠안씨는 할 수 없이 다음날로 4) 일용직 시장에 나갔다.

깜깜한 새벽이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어색하게 서 있는 띠안씨.

그때 한 회사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픽!", "픽!" 하고 소리를 질렀다.

'픽?? big? 큰 회사?' 대단히 큰 회사라고 생각한 띠안씨는 재빨리 손을 들고 봉고차에 올랐다.

반나절쯤 달렸을까? 차는 어느 순간부터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깜빡 잠이 든 띠안씨, 막 도착했는지 운전사는 차의 시동을 끄고 있었다.

드디어 차 문이 열리고 띠안씨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큰 회사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던 띠안씨의 눈 앞에는 펼쳐진 광경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 산골이었다.

5) 아햏사! 그 사람이 외쳤던 "픽"은 "Big"이 아니라 "Pig(돼지)"였던 것이다.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양돈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외국인들이 모여앉아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농담도 잘 하시고 마음씨 좋은 한국아저씨가 난데없이 귀신 얘기를 꺼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어. 글썽 어제 그 말로만 들던 화장실 귀신을 내 눈으로 푹푹히 봤다구!"

그러자 또 다른 아저씨가 "요즘은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 화장실을 옮기던지 해야지 원..."

순간 띠안씨는 뒤에서 한기를 느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곧잘 귀신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본적은 없었다.

띠안씨는 긴장해서인지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다.

조용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띠안씨,

귀신 얘기가 영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럴수록 화장실이 더 가고 싶어졌다.

농촌의 화장실이 다 그렇지만 이 곳은 더 허름했다.

양돈장 한구석에 판자로 대충 얼기 설기 만들어져 일을 보며 밖도 볼 수 있었다.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일을 보려고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앉은 띠안씨...

그런데! 그때!

누군가 어깨를 푹푹 두드리는 것이 아닌가!

흠짓 놀라 뒤를 돌아본 띠안씨,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게 아닌가.

띠안씨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잘 보세요 저...는... 외..국..인..이예요..."

"앵? 너도 외국인이야? DO YOU SPEAK KOREAN?"

6) "한국말 해요. 6년 됐어요"

"정말? 6년이나? 어머니 안보고 싶어?"

"집에 가야해요 하지만.. 하지만..."

띠안씨는 어느새 귀신과 앉아, 도란 도란 어머니가 아픈 얘기와 집에 가려면 56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 등등을 허물없이 얘기했다.

7) 어느새 무서움도 사라졌다. 그리고 웬일인지 오랜만에 일종의 해방감도 느꼈다.

1) 90년대 초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관광비자로 들어왔다. 김포 공항에 내려 출입국 검사대를 통과할 때, 약간의 돈(관광 비용)만 형식적으로 보여주면 입국이 됐다고 한다. 이들은 출입국에서 자신들이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당시는 한국 경제가 호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2) 한국에 오랜기간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의 집에 전화를 잘 걸지 않는다. 하지만 온지 얼마 안됐거나 본국에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주 집에 전화를 한다. 그래서 때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전화요금으로 사용하는데(어떤 이주여성노동자는 전화 요금만 한달에 60~70만 원을 썼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제전화카드가 나오고 나서는 그 지출이 조금 줄었다. 이제 이주 노동자의 지갑 안에는 가족, 친구들의 사진과 더불어 국제전화카드가 그들의 그리움을 달래주게 된 것이다.

3) 출입국관리국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자진출국을 할때도 벌금을 내라고 했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도입된 후에는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막대한 벌금을 책정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차원의 벌금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체류자의 자국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미안하나 중국등은 자국민에게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데 이 벌금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귀국은 막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IMF가 한국의 노동자만 거리로 내몬 것은 아니었다. 함께 일했던 이주노동자들도 거리로 내몰렸다. 그들도 일자리를 찾아 헤맸고 노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냉소적이었다. 3D 업종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일하던 그들도 이제는 일용직 시장을 떠돌 수 밖에 없게 되었다.

5) 한 이주 노동자가 삼성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며 자랑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영세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자랑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주노동자에게 큰 공장의 의미는 산재의 위험이 적거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문제라기 보다는 매달 꼬박 꼬박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커보인다. 중소 영세한 공장의 불안정한 고용, 잦은 임금체불은 이주 노동자를 한국 땅에 붙잡아 두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6)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지낸 이주노동자 중에 공장에서 일은 곧잘 하는데 거의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한국말을 알아 듣고 일을 하는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행동을 지켜보며 일을 익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이주 노동자는 임금체불이 계속되어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이직을 하지 않는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익힌다는 것이 너무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7) 이주는 끝없는 터널과 같다. 캄캄한 터널을 달리면서 잠시 후 밝은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희망을 갖지만 밝은 빛은 쉽사리 비쳐지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빛을 얻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절대 아프지 말것. 둘째, 마음씨 착하고 부도가 나지 않을 사장만 만날 것. 셋째, 친구와 모임에 관심 갖지 말고 일만 할 것. 넷째, 여자는 처다도 보지 말것. 이외에 우연히라도 절대 불행을 만나지 말 것. 그리고 만약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행운을 얻었다면 다시 터널로 들어가지 말 것이다.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공장밖으로 나오기 힘든 그들은,  
TV가 우리 대신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TV속에서만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무관심이 그들을 TV속에 가둬 놓았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은 낯설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일꾼으로 불려왔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적 권리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계가 되고 싶지만,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 그들과 우리의 꿈은 다르지 않다

일주일 사이에 4kg을 채운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검사일을 하루 앞둔 하루하루의 시일은 빨리도 지나갔고, 꼭 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누군가에게 힌트를 얻어 팬티 밑에 납덩이를 매달기로 결정했다. 동대문 시장 주변을 돌며 구입한 작은 납덩이들도 고작 3kg 이상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머지 1kg은 먹어서 채울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체중검사 날이 되어, 내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는, 저울에 오르기 전에 먹을 대로 먹어 있었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생계란 20개 풀어 두었던 주전자를 들어 다 마시고 저울에 올라섰으니, 위장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파독 광부 30년사> 안양수

돈을 벌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파독광부들의 애환은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현재, 40만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이주노동자 유입국이 된 것이다. 하지만 부실한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인해 송출비리는 꿈이지 않고 있으면,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브로커 비용으로, 많게는 1,500만 원씩이나 내면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40년 전 파독광부의 애환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이주'의 현상 배후에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부의 부 빈익빈' 라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세계화에 의해 고착되어 버린 국가간 불균등한 경제발전 상황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국경을 넘도록 그의 등을 떠미는 것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지구중력'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빈국에서 부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자본의 중력'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구중력에 이끌리는 물과는 달리, 자본의 중력에 의해 이끌려온 이주노동자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차별에 시달린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를 것이다.

이주는 마치,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꾸는 꿈속의 사건처럼 보인다. 이주자는 그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전혀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발하지 않는 이상, 이주자들의 행위들은 그 꿈을 꾸는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이주자 자신이나 그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역사적인 필연성이, 이주라는 현상 속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왜 이주자의 삶이 남의 꿈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는가 하는 이유이다. <제 7의 인간-유럽 이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 존 버거



도시화된 국가의 경제에 관한 한 이주노동자들은 불사의 존재, 끊임없이 대체 가능함으로 죽음이란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으며, 지지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 하나의 기능-일하는 것을 가질 뿐이다.

<제 7의 인간-유럽 이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 존 버거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한국정부의 주장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정책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단기 로테이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국내취업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맘에 안 들어도 사업장 이동이 불가 할 뿐만 아니라, 취업 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때 사장이 심술을 부려 재계약을 안 해줄 경우, 그는 곧바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한국 올 때의 브로커 비용을 생각한다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 정책에 맞춰 귀족은 듯 일 만 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취업기간 중 가족동반은 배부른 소리요, 사회간접비용이 드는 이주노동자들의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복에 겨운 소리이다. 이주노동자가 '인간' 이 아니라 차라리 '일하는 기계' 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말이다.

법무부 출입국에서 하는 일 중에 아주 웃기는 일이 많은데, 그 중 으뜸은 단속과 벌금에 관한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이 불법체류했던 기간을 계산해서 벌금을 내라고 한다. 대략 한 달에 10만 원 풀이어서 1년이면 100만 원, 2년이면 200만 원 가량이 된다. 안 가겠다고 꼭꼭 숨어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붙잡아다 강제출국 시키면서도, 스스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안내면 못 간다고 도로 내보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금은 없고 집에는 가야겠다고 하니, 일부러 파출소 앞에서 강도 시늉이나 도둑 시늉을 하기도 한다. 출입국에 가서 사정해봤자 못 나갈게 뻔하니까, 차라리 경범죄를 저질러 강제출국 당하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다. <말해요 찬드라> 이란주

이 나라에서 이주노동자가 필요 없다면 완벽하게 보내든지, 한쪽에서는 강제로 내보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사람 데려 오고 있고, 새로 데려 온 그 사람들, 내 13년 전의 나이, 20살 이예요. 그 사람들 꿈이 있어요. 모든 사람 꿈이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처럼 꿈 없는 사람 되 버려요. 그 사람들 어차피 불법 돼요. 고생해요. 돈도 못 벌고,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한국정부가 노동자 필요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보내면 여기 한명도 안 있을거야. 깨끗하게 다 갈꺼야. 근데 너무 장난스럽게 데리고 와서 불법 만들고, 한쪽에서는 썩 보내고 보내지도 않고, 뭐, 그냥 고양이 쥐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잠을 수 있는데,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건 정말 안타깝죠. <뿌리없는 나무> 이주노동자와의 인터뷰-삼순이PD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발견할 수 있다. "금번 자진귀국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2005.8.5)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여, 벌금을 물리고,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강력한 단속과 출국유예는 17차례나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의 반복은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한국을 떠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일관된 정책적 기조는 '임시방편'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휴지조각과 다를 바 없는 정책 때문에, 단속이 극심했던 2004년 11월, 겨우 한 달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노동자의 수는 8명에 이른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바로 한국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어쩔 수 없이 "불법사람"으로 만드는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싼 값에 노동자를 쓰고 버리기 위한 전략이다. "불법" 상태에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싼 값에 부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새로운 이주 노동자로 물갈이 하면서 임금을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단결투쟁과 공동체 형성을 저지하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나를 차별하는 것들> 이주노동자 마봄

한국은 현재 불법체류자 발생률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체 왜 그럴까?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는 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서일까?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3년 동안 등이 휘도록 일하고서도 브로커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불법체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를 상상해 보자. 그리고 그의 결정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불법체류 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브로커의 송출비리에 대해서는 별 대책도 없이, 단기로레이선제도만을 고집하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이주정책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정부는 이러한 이주정책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만일 알고 있다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도, 왜 고치지 않는 것일까?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이주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들의 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강력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체류자 증가율이 2배 나 되는 한국의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만들면서 이득을 보는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일까?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한국정부일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바로 우리 모두이다. 우리가 누리는 안락함은 결국 누군가의 고통에 기대고 있는 것이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주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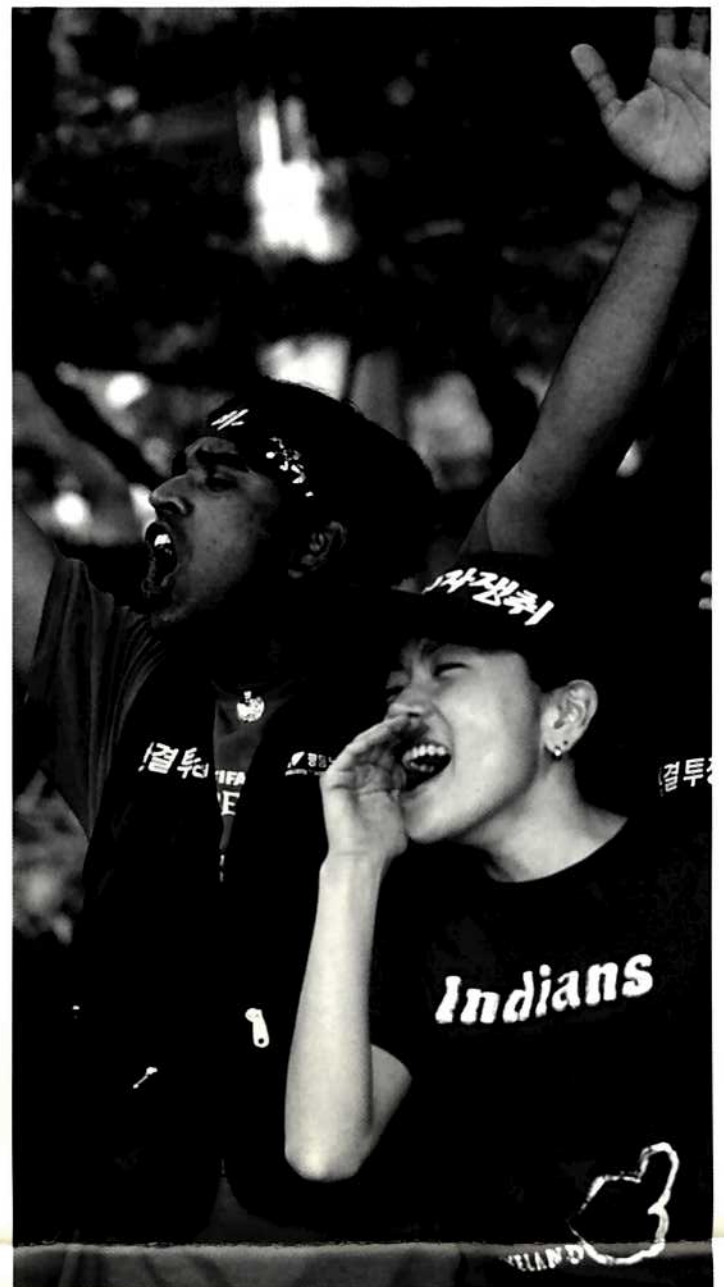
저개발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강탈과 착취를 당했다는 것만은 아니다. 인위적인 율혈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저개발이라는 그 치명적인 지체는 삶을 부정하는 죽음을 닮아 있다. 그에게 이민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단지, 빈곤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어떤, 역동성'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제 7의 인간-유럽 이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 존 버거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형들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때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만 하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저에게 악몽과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속에서, 고향을 찾은 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기 때문이죠,  
"아웅, 이제 무슨 일을 하며 살거야?"  
〈돌아가기 전에〉-조니 아웅, 믹스라이스

한국인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은 '잘사는 나라'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희망대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한다면,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또한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본이 외국의 국경을 넘는 것처럼, 외국의 노동력이 한국의 국경을 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흐름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래의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꿈을 우리의 희망 속에 심는다면, 우리의 희망 또한, 그들의 꿈속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과거의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그들에게 안겨주는 좌절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절망으로 과거의 절망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긋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이주노동자의 악몽에 뿌리내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 삐삐에남겨진 그녀의 문자

이주노동자 팡이란

10년 전 쯤이었을 것입니다. 한창 삐삐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저는 미얀마에서 일하러 한국에 오긴 했지만, 그때 다들 갖고 있던 삐삐를 저 역시도 갖고 있었습시다. 그때 저는 20대 초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있었고, 무엇이든 아름답게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시다.

저는 그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간호사였습시다. 천사같은 그녀가 나를 향해 웃을 때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시다. 행복했습시다....하지만 첫사랑이 그렇듯 저도 그녀와 슬픈 이별을 해야 했지요. 내가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무척 부담스러워했던 것 습시다.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친구처럼 지냈지만 쉽지 않았습시다.

결국 우리는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냥 서로를 그리워하며 떨어져 지냈습시다. 하지만 내 손에는 항상 그녀의 문자를 기다리는 삐삐를 꼭 쥐고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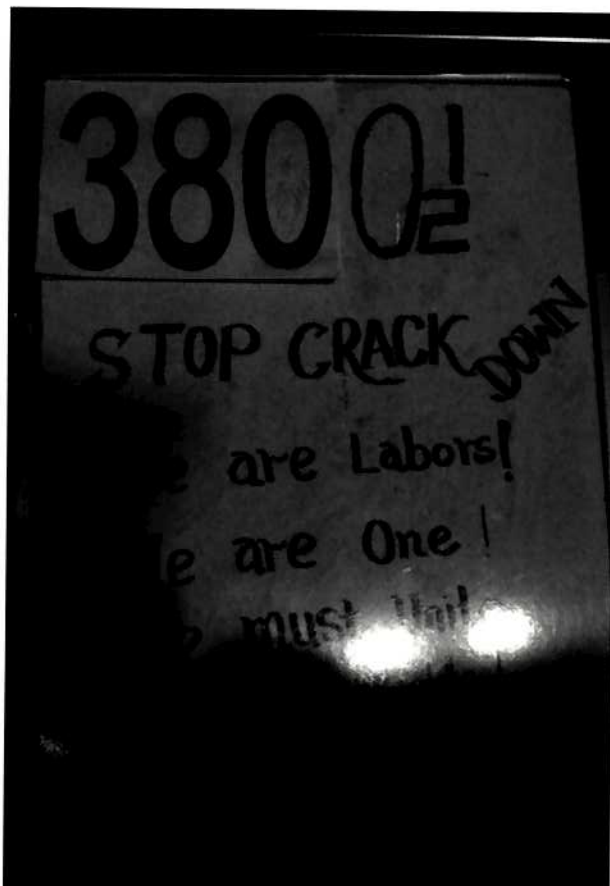
나는 삐삐를 볼 때마다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느라 무척 힘들었습시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 밖을 나갔는데, 그만 삐삐를 두고 나왔습시다. 마음 한 편으로는 혹시 삐삐가 울리면 어쩌나, 그녀에게 연락이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일이 급해 그냥 나갈 수밖에 없었습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 돌아왔습니다. 서둘러 삐삐를 찾아 확인해 보니 그렇게 울리지 않던 삐삐가, 그녀가 보낸 문자가 와 있는 것이었습시다. 나를 만나러 왔다는, 나를 기다린다는...하지만 이미 늦었습시다. 그녀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었습시다.

삐삐가 있던 시절,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나 이런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삐삐를 손에 쥐고 기다리던 연인의 연락이 오늘따라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농성을 시작하기 전에 알았다.  
이제 내 인생, 내 꿈은 끝났다는 것을...  
악몽은 14년 전에 시작되었다.  
서울 변두리 전기코드 조립 공장에서 1달에 32만 원을 받으며  
3년 간 일했다.  
이후 대구로 내려가 또 32만 원을 받고 2년 간 일했다.  
다시 서울에서 2년간 50만 원을 받았다...  
일본으로 밀항을 결심했다. 하지만 실패였다.  
돈을 준 브로커에게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만 들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천 만 원 가까운 빚이었다.  
농성을 한 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희망도 아니었다.  
단지 억울함에 대한 답답한 호소였을 뿐이다.  
-14년 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이주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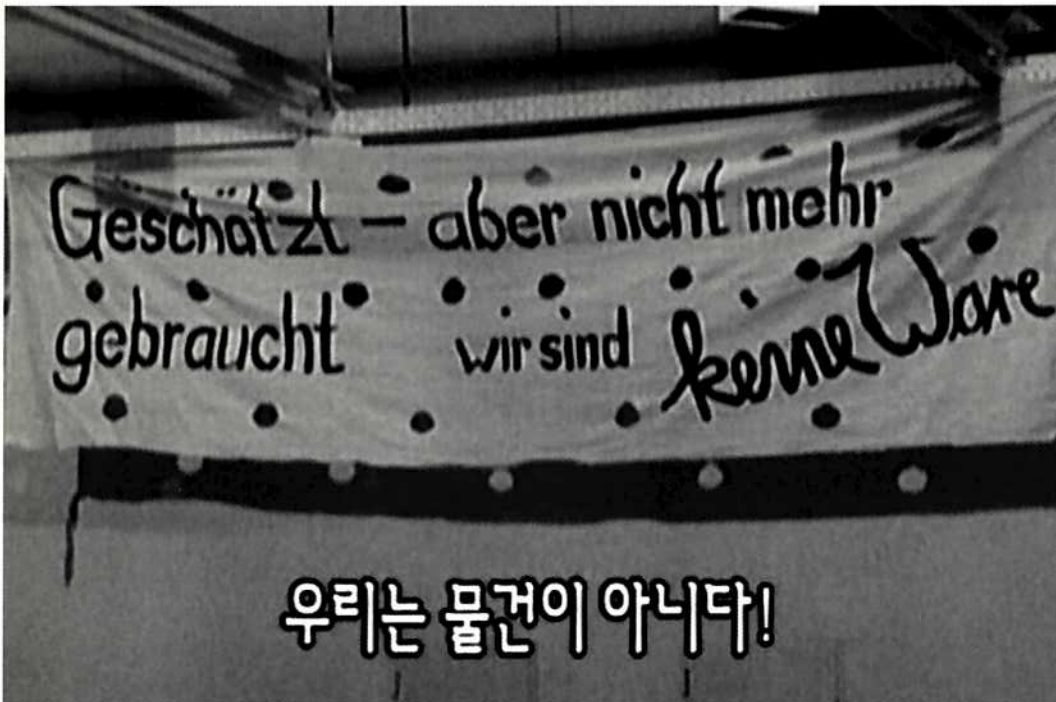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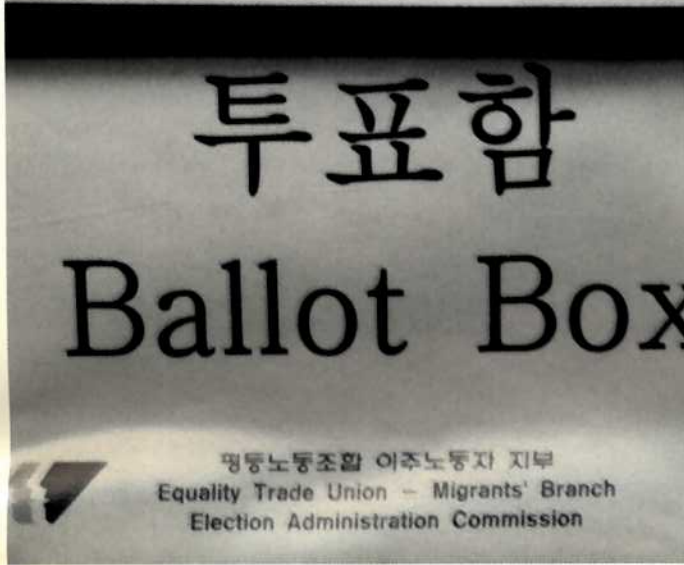
명동성당의 389일의 농성은 이주노동자 노조를 탄생시킨다.  
87년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가정부로 이 땅에 들어온지 18년만의 일이다.

2005년 5월 14일 새벽1시경 독섬역.  
20여명의 경찰들이 단 1명의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한다.  
어둠속에서 그는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순식간에 경찰들에게 납치되고 만다.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나 아노와르 개인을 연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연행한 것입니다.  
이주 노조의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나는 쉽게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아노와르〉

1년 3개월전인 2004년 2월 15일.  
명동성당 농성 투쟁단의 공동대표였던 사말 타파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법무부가 2월말까지는 단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한지 1달도 채 안돼서였다.

“법무부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주 노동자를 겁주면서 몰아 낼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피땀 흘리면서 일해온 우리와 우리 가족의 생존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평등노조 이주지부 지부장 사말 타파〉



###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이주 노동자의 노동 비자유구와 단속 추방 반대의 목소리는 30년 전 독일에서도 있었다. 2005년의 막막한 현실이 30년 전 독일에서는 해피엔딩의 꿈처럼 이루어졌다.

73년 석유파동 이후 경기가 나빠지고 자국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한국 간호사들에 대한 독일 정부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했다. 3년 계약이 끝난 사람은 가라...

독일 정부의 태도에 간호사들은 분노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도 문제였다. 더구나 독일 간호사가 기피해오던 더럽고 힘든 일을 한 건, 그 누구도 아닌 한국인 간호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진속의 현수막은 그 당시 항의농성을 하던 파독간호사들이 내걸었던 것이다.

## 이주노동자의 자녀 전교 1등 하다

이주노동자 자녀 전교에서 1등

“제가 잘해서 엄마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거든요,  
엄마는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봄 한 방송에서는 특별한 한 학생이 소개되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중학교를 다닐때는  
성적이 바닥을 헤매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 전교 1등, 그리고 반장까지 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 학생의 특별함은 공부를 못하다가 잘해 장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수업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 한 단어도 몰라요”

이 학생의 특별함은 바로 몽골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 몽골에서 한국에 온 것이 2000년.  
어렵게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한국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당연히 성적도 나빴고 학교 적응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학생은 교실 첫째 줄에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라면이라도 먹었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에 있는 한 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불법체류자인 어머니를 따라 인천에 살면서 의정부에 있는 학교까지...  
4시간을 전철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져 같은 처지의 몽골인 친구들 2명과 서울 변두리 옥탑방에서 지낸다.  
월세 20만원, 한달 내내 라면만 먹기도 했고, 차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궁암 수술을 받고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

이 학생의 꿈은 열심히 공부해 어머니를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전교 1등을 했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를 쫓는 요즘의 TV 문화로써는 정말  
좋아할만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은 '세상의 이런 일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실이기는 하나 거짓같은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에게 전교 1등 하는 몽골 학생의 이야기는 정말 꿈같은 현실이다.

2004년 외국인 노동자의 집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는 1만 5천여명. 그 중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 수는 1만명. 그러나 실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1천여명으로 10%에 지나  
지 않는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 10%의 아이들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급학교  
의 진학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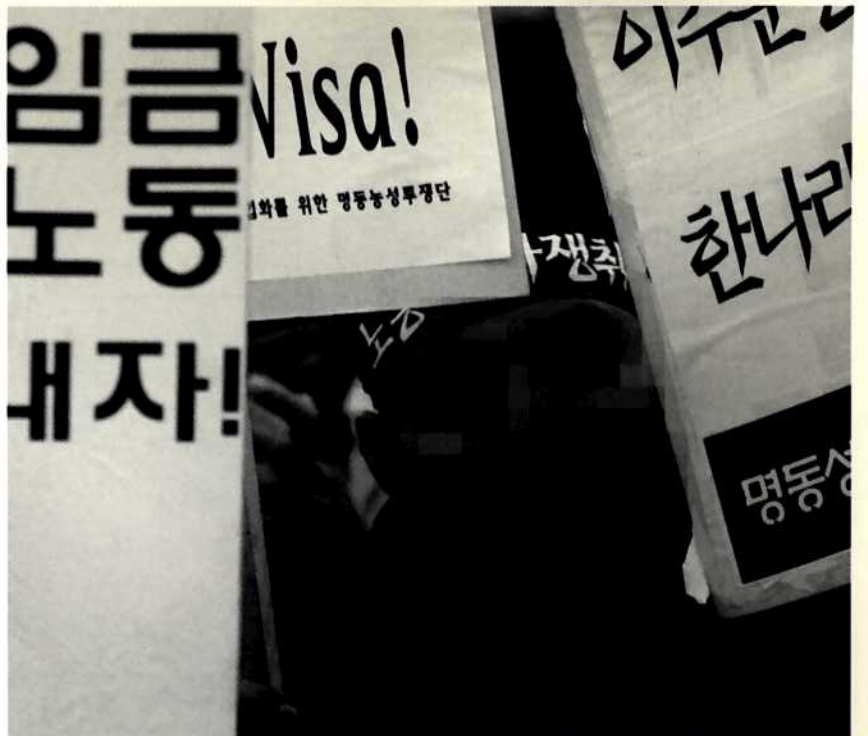
하루종일 부모의 공장과 기숙사 방을 번갈아 가며 놀이터로 삼아야 하는 아이들.  
부모가 출근하며 밖에서 잠귀놓은 방 안에서 TV와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  
그들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다.

한국은 지난 91년부터 UN에서 채택된 '아동권리 협약'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  
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 중,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을 시  
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지키지 않아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모든 외국인 어린이한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

이에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입학을 허가하긴 하였으나 이는 권고사항일뿐, 권리와 의무로 규정  
하지 않고 각 학교장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대다수의 아이들의 교육권을 빼앗아 버렸다. 운이 좋아 학교  
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자격은 대부분 청강생일 뿐이다.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전교 1등을 하고, 반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갑고도 놀랍다.  
하지만 이 놀라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워 해야할 어떤 사실들을 가리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한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전교 1등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최소한의 교육권조차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한국에는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기계처럼 일만 하는 이주노동자밖에 없다.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표적연행되어 강제추방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